

- 주요 뉴스: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통화긴축 강화 우려 증폭
 - 미국 MasterCard, 금년 연말 연휴 기간 양호한 소비지출 예상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10월 ECB는 적어도 0.50%p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하락. 에너지 공급 불안 등이 배경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쇼크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4.3%], 달러화 강세[+1.5%],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기술주 약세 등으로 2년 만에 최대폭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업 및 기술 관련주 약세 등으로 1.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5%, 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92.4원, +18.8원) 1.4% 상승, 한국 CDS 상승

		9/13일	9/12일	전일대비			9/13일	9/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32.7	4,110.4	-4.32%	국채 금리 10y	미국	3.41%	3.36%	5bp
	유럽	421.13	427.75	-1.55%		독일	1.73%	1.65%	8bp
	중국	3,263.8	휴장	0.05%	CDS 5y	한국	33bp	31bp	2bp
	일본	28,615	28,542	0.25%		중국	72bp	66bp	6bp
	한국	2,449.5	휴장	2.74%	위험 지표	EMBI+	-	408	-
환율	달러지수	109.93	108.33	1.48%		VIX	27.27	23.87	14.24%
	유로화	0.9970	1.0122	-1.50%		WTI유	87.31	87.78	-0.54%
	엔화	144.58	142.84	-1.20%	원자재	구리	358.1	362.6	-1.23%
	위안화	6.9305	휴장	-0.06%		금	1,702.2	1,724.5	-1.30%
	원화	1,373.6	휴장	0.5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통화긴축 강화 우려 증폭

- 해당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8.3%로 전월(8.5%) 대비 하락했으나 예상치(8.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월간 상승률은 0.1%로 예상치(-0.1%) 및 전월(0.0%) 대비 상승.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6.3%, 0.6%로 모두 전월(각각 5.9%, 0.3%) 및 예상치(각각 6.1%, 0.3%) 대비 높은 수준
- 이번 결과는 월간 기준 휘발유(-10.6%) 및 중고차(-0.1%) 부문이 약세를 나타냈으나 식품(0.8%), 에너지 서비스(2.1%), 주거비(0.7%) 등의 강세가 지속된 영향
- 이에 연간 CPI 상승률이 6월(연간 9.1%)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근원 CPI 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불안 증대. Moody's Analytics의 Ryan Sweet도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에 안도감을 느끼지만,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
- CME FedWatch Tool은 이를 반영하여 9월 FOMC에서 0.75%p 인상(68%)이 예상되나 1.00%p 인상 가능성(32.0%)도 있다고 제시. 11월 FOMC에서도 0.75%p 인상 가능성(51.2%)이 높다고 평가. 한편 연방기금금리는 금년 말 4.00~4.25%, 내년 중반에 4.25~4.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이를 고려한다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중국 등 주요 채권국은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신흥국의 25%, 저소득국의 60%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주요 채권국은 연쇄 파산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미국 MasterCard, 금년 연말 연휴 기간 양호한 소비지출 예상

- 설문조사에 따르면, 11/1일~12/24일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매출이 전년동기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전년(8.5%) 대비 낮은 수준이나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한편 연휴 관련 소비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될 것으로 관측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10월 ECB는 적어도 0.50%p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 게디미나스 심쿠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강하기에, 적어도 0.50%p 이상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주요 경제지표가 기존 추세에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ECB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하락. 에너지 공급 불안 등이 배경

- 해당 지수는 -61.9를 기록하여 전월(-55.3) 대비 낮은 수준. ZEW의 Achim Wambach는 겨울철 에너지 부족 우려 등으로 독일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했다고 평가. 9월 현행 지수도 전월비 하락(-47.6→-60.5)
- 한편 이날 경제부는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 또한 채무불이행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노동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다고 평가

■ OPEC, 금년 및 내년 양호한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유지

-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 요인에도 주요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에 '22, '23년 각각 일일 310만배럴, 27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추정을 그대로 제시. 향후 코로나 팬데믹 영향과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Morgan Stanley, 금년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

- 금년 3/4분기 및 4/4분기 배럴당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각각 12달러, 5달러 낮은 98달러와 95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 외 지역 공급 등을 유가 하방 요인으로 거론. 다만 내년에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재정수지(억달러): -2200, 7월(-2110), 예상치(-2130)
- 독일 8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8.8%, 7월(8.8%), 예상치(8.8%)

■ 주요 경제 이벤트(9/14 현지시각 기준)

- ECB 레인 이사 강연, 미국 8월 생산자물가, 유로존 7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세계화, 상품 부문이 부진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기술발전으로 확대** - Financial Times
(Globalisation is not dying, it's changing)
 - 세계화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이는 중국이 중간재 직접 생산을 확대하는 등 무역 의존도 정상화에 나서면서 상품무역 세계화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세계화 비중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감지
 - 서비스업은 상품에 비해 무역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특히 공급망에서 대규모의 물리적 이동이 필요 없는 기술 서비스 분야는 세계화를 견인. 이는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전망
- **미국 회사채 시장, 통화긴축에도 발행여건은 양호** - 블룸버그
(Hot Corporate Bond Market Puts Buyers' Strike on Ice)
 - 금년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채권투자 심리 위축과 기업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그동안 발행유인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
 -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아직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 또한 최근 회사채 발행 증가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일 가능성. 한편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으로 발행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금리인상, 부동산 업체의 차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 - WSJ
(Property Faces a Slow Reckoning as Interest Rates Rise)
-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은행의 상설레포가구 접근성 확대 필요** - Financial Times
(How to save the Treasury market)
- **유럽, 동절기 에너지 수요 관련 도전에 직면** - 블룸버그
(Harsh Winter Reality Is Finally Sinking In for EU Leader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